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 물 건너가나

전남도의회, 규약 의결 보류·예산삭감에
연합의원 선임 등 후속 행정절차 ‘올스톱’
규약 부칙에 사무처리 개시일 ‘연내’ 명시
내년 지방선거로 출범 지연·좌초 우려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목표로 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이 전남도의회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 계획에 따른 이점을 얻기 위한 시·도간 초광역 협력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나 내부적 이견 등 지역적인 이유로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지연시킨 만큼 전남도의회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8월27일 특별광역연합 설립을 공식 선언한 후 9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 구성, 10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행정 예고 등 연내 출범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별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제199조)에 근거해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단위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법인이다.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존치하는 대신, 자체 의회와 장(長)을 별도로 구성해 초광역 협력사업 등 공동사무를 특별지자체 단위에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이재명 정부 ‘5국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된 첫 초광역 사례로



포근한 大雪…여전한 가을색
많은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大雪)인 7일 한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오른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길을 방문한 나들이객들이 휴일을 만끽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시·도간 협력을 통해 광역대중교통망 확충, 전략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전남도의회가 특별광역연합 규약에 대해 심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연내 출범은 물론, 향후 출범 여부 또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10월15일 광역연합 규약 의결을 보류한 데 이어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규약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광역연합 운영을 위해 전남도가 편성한 분담금 예산 15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24일 열린 제337회 본회의에서 광역연합 규약안을 최종 의결했다.

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4일 광주시가 편성한 광역연합 분담금 예산 15억원도 통과 시켰다.

도의회는 규약안 상정 보류 이유로 광역연합 출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 광역연합의 필요성 논란, 개발 수혜 도시권 편중 우려 등을 꼽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달 4일 전남도에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18일엔 안평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첫 임시회 소집으로 광역연합

문해 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어졌다. 이병현 지방시대위원회 5국3특 특별위원장도 지난 1일 김태균 도의회 의장을 면담해 광역연합 규약안의 결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연합 출범을 위해선 각 시·도 의회에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의결, 행정안전부 규약안 승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결, 연합의원 선임 등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같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연합의회 첫 임시회 소집으로 광역연합

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 규약안의 결 절차 지연에 따라 사실상 현실에서 연내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부칙은 ‘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6년 1월1일 이내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연내 출범이 무산되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행정예고와 시·도의회 규약안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재추진해야 해 광역연합 출범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규약 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중 선출하는 광역연합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지자체장 임기만료 시 연합장 임기도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 선거 이후 광역연합이 정상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와 전남도가 1호 공동사무로 추진하기로 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현안에 대한 광역연합 차원의 힘 심기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시·도는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5국3특을 기반으로 한 지원을 강조한 만큼, 광주와 전남이 이미 출범한 충청광역연합 등과 비교해 각종 재정적 인센티브와 광역사업 공모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권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 동력을 가져다줄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이 늦어질수록 지역발전도 뒤처질 수 밖에 없다”며 “당초 목표대로 연내 출범을 위해 도의회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군공항 이전 6자 TF, 이달 중순 광주서 첫 회의

사전협의서 3개 지자체 정부 중재안 공감
무안군 실무반 구성…합의안 도출 주목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주도 6자 테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이달 중순 광주에서 열릴 전망이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간 4자 회동에서 광주·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이번 TF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정부·지자체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TF 첫 회의가 이달 중순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달 셋째 주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김산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TF 회의에서는 사전협의에서 제시된 정부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광주·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중재안은 ▲무안군이 요구한 공모 방식 군공항 이전지역 선정 불가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수용 ▲무안군 요구 3개 선결조건 조정 ▲광주시 1조원 지원 이행 방안 마련 ▲정부 차원의 국가산단 등 지원책 검토 ▲광주공항 선(先) 이전 등으로 알려졌다.

사전협의 결과, 3개 지자체가 정부에서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 만큼 첫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합의 도출의 키를쥔 무안군도 지난달 26일 실무반을 구성해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시기 검토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제시 ▲정부의 무안 지원 폐기지 적정성 논의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역할과 과제를 분담해 6자 TF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난달 대통령실과 지자체 간 사전협의에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최대한 빨리 첫 TF 회의를 개최하자는 데의

Today

광주서 또 청소년 집단폭행 학부모 불안 6면

지역 먹거리 물가 5년간 26% 올라 12면

“광주FC, 시민구단 기적은 계속된다” 16면

견이 모아졌다”며 “시간이 지연되면 새로운 변수가 돌출될 수 있기에 실무적 검토가 끝나 대로 대통령실에서 지자체와 조율 후 회의 일정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松川(주)송천

전기공사 · 신재생 에너지기업 · 태양광 발전 시공/인허가

태양광 완벽 시공 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한다

(주)송천은 건물 태양광 발전과 농촌 태양광 발전 등을 시공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해 10여년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어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은 결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승환 대표이사

본사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322 2동 1층
광주사무실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6-2(월출동 971-39, 2층)

TEL. 062) 972.1527 / H.P. 010.9882.2405